

# 이러고도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 맞나 욕설에 술 마시고 성추행까지

## “2년 지난 세월호 사고 추모할 필요 없어” 생활교육 이유 3일 동안 쉬는시간 박탈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여교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회 위원회에 따르면 A고등학교 B교사는 최근 1~2년의 술을 마신 후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여교생을 학생부실로 불러내 얼굴을 깨물고 두 팔로 껴안은 등 강제 추행했다.

그는 평소에도 학생을 지도한다며 손으로 여교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일

이 잦았고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체육복 상의의 지퍼를 내리기도 했다.

잘못해 적발된 여학생에게는 ‘보뽀 하면 봐 주겠다’는 말을 하곤 했으며 여학생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학교 운동장을 도는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학생들에게 ‘X X 새끼, X만도 못한 새끼, X새끼’ 등의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부어왔다.

강당에서 차마를 입은 여교생을 보고는 “모두의 눈에 불편하다. 차마 입지 마라. 바지 살 돈 없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학생인권심의위는 이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전북도 교육청에 징계를 권고했다.

특히 여교생들에 대한 성추행은 징계로 끝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도내 C 초등학교 D 교사는 지난 4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월호 리본’을 보고 “2년이 지난 교통사고로 죽

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는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나라를 구하려고 돌아가신 군인들은 추모하지 않으면서 그러느냐”면서 “우리 반은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또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3일 동안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은 등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학생인권심의위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표현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제한한 부적절한 처사와 학생들의 휴식권 침해로 판단해 전북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1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5급 승진 리더과정 연수생 348명 대상 '2016 지방자치단체 명품정책' 특강에서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했다.

## 김승수 전주시장, 지방행정연수원서 특강

###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 주제로 명품정책 소개

대한민국 지방자치체를 대표하는 명품정책으로 주목받는 전주시의 다양한 명품정책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5급 승진리더과정 연수생 348명을 대상으로 한 '2016 지방자치단체 명품정책' 특강에서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특강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

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올해 최종 선정된 9개 명품정책 중 운순영 대구 중구청장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강단에 올랐다.

김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시장 취임 후 첫 번째 결재사업인 '발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밤상'과 사람 중심의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 운영, 생태동물원 조

성 등 사람·생태·문화로 대표되는 전주만의 명품정책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 시장은 공직자로 전국 자치단체를 변화시켜나갈 5급 승진리더과정 연수생들에게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장애인이 걷고 싶은 길, 장애인이 편한 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겐 편한 길이다”며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은 이처럼 한 사람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보건소, 여름 방역소독반 발대

### 차량 9대 · 인원 59명 배치

전주시가 시민 건강을 위해 본격적인 여름철 해충방역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는 1일 보건소 강당에서 각 동 방역소독인력과 관련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계방역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해충방역에 돌입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올해 특별방역대책으로 초미립 방역소독 차량 9대를 빌려 27개 코스를 3일에 1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각 동에 1~3명씩 총 54명의 방역인원을 배치해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기동방역반 5명을 별도 편성해

공원지역과 하천 및 복개지역, 정화조 등과 민원발생지역 등에 집중 투입해 모기 해충 없는 전주 만드는데 총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방역현장 최일선에 있는 방역반의 적극적인 활동이 모기와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질병 없는 전주시를 만들 것”이라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활동을 주문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모기 서식지 발견 시에는 전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3-281-6341~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 한옥마을 방문객 협박 대어 렌터카 업체 적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을 상대로 차량을 대여해준 뒤 전부터 나 있던 흡집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한옥마을 방문객들에게 차량을 대여해주고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욕설과 협박으로 수리비를 뜯어 낸 혐의(공동공갈)로 렌터카업체 직원 박모(20)씨를 구속하고, 소장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렌터카 사무소 소장 겸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최근까지 한옥마을을 찾은 학생과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주로 렌터카 고객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범퍼 밑의 흡집

등을 보여주고 수리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거액을 받아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들의 욕설과 협박에 겁을 질린 여성과 학생 한옥마을 방문객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95만원까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총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 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4명에 달한다.

전국적 관광지로 자리잡은 한옥마을의 명성에 먹칠 한 이들의 범행은 '막무가내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피해자들의 신고가 15건이나 접수되면서 들쭉날쭉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 직원들의 협박에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진수 기자

## '용담댐 수질 조작' 계약직 직원 11명 벌금형

용담댐 수질 측정 장치의 수치를 조작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들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1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에게 벌금 1000만원, 박모(37)씨 등 3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김모(41)씨 등 7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수자원공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이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용담댐 상류의 진안·장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자동측정기기(TMS)의 수치를 모두 194회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 유입으로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받거나 인사고

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TMS 고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 의류매장 절도 70대女 '덜미'

익산경찰서는 1일 의류매장에서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임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12시 27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의류매장에서 의류 10점(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의류의 비닐포장과 택을 제거하고 손가락 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금융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금융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